

해군교육사령부 고성이전에 관한 건의문

의안 번호	918
----------	-----

발의년월일 : 2005. 5. 23

발 의 자 : 정임식의원 외 6명

1. 주 문

- 최근 국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는 해군교육사령부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통일한국의 태평양함대를 꿈꾸는 해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고성군으로 이전 희망
- 진해만과 연접해 있는 고성군은 남해안의 교통요충지로 전국적인 해군 인력확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충무공 전승지인 당항포가 있는 역사적인 산 교육장
- 역사적 당위성과 지리적 이점을 갖춘 고성군에 해군교육사령부가 이전할 수 있도록 군민의 대표기관인 고성군의회 의원의 결의로 건의문 채택

2. 제안사유

-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인구 감소로 군의 존립기반마저 위협받는 현실로 이전설이 있는 해군교육사령부를 고성군에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 기대
- 고성군에서 선정한 유치예정지 160만평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 천연요새로 군사훈련 최적지이며 전 군민이 유치 서명운동에 참여

3. 건 의 처

- 국방부, 해군본부, 해군교육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고성이전 건의문

급변하는 국내외 안보환경과 국방여건에 갈수록 비중을 더해가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튼튼한 국방건설”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국군과 군인가족의 노고에 고성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나라가 평화와 번영을 주도하는 동북아 중심 국가로서 장차 통일 한국의 태평양함대를 꿈꾸는 해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각 분야별 전문인재를 양성하여 전투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해군 인재양성의 요람인 해군교육사령부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전 고성군민의 간절한 뜻을 모아 지역의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군의회 의원으로서 해군교육사령부 고성 이전을 간절히 건의코자 합니다.

우리 고성군은 남해안의 교통요충지로 전국적인 접근성이 뛰어나 해군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며, 이충무공의 당항포 승전지가 있는 해군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화한 기후에 호수 같은 바다가 있으며, 고성군이 선정한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예정지 160여만 평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 천연요새로 해군 군사훈련의 최적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의회 의원은 이러한 역사적 당위성과 지리적 이점을 갖춘 고성군이야말로 해군교육사령부 입지의 최적지임을 말씀드리며, 해군교육사령부가 고성에 이전될 수 있도록 5만 7천 군민과 더불어 군민의 대표기관인 고성군의회 의원 전원의 결의로 이 건의문을 제출합니다.

2005. 5.

경상남도 고성군 의회의원 일동

귀하